

“대체인력 부족에 확진자·교장도 수업”

“사람없어 확진돼도 수업...교장도 예외 아냐” 교육부 대체인력풀 7.5만명 마련...실효성無

오미크론 유행 확산세가 커지면서 코로나19에 걸린 교사·교장이 담임 업무를 진행하거나 교장·교감이 담임 업무를 대체하는 등 교내 업무 공백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사들은 교육부의 대체인력 지원 방안에 대해선 “현장에 와 닿지 않는다”며 고개를 갇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등교 첫 주 교사들이 집단감염된 일부 학교에선 대체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아 재택치료 중인 교사들이 그대로 수업에 투입되는 사태가 속출했다. 관리자인 교장·교감이 담임을 맡거나 수업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천 한 중학교의 교과 교사 A씨는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원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교사가 구해지지 않아서다.

A씨는 “수업 시간이 하루에 2-3시간씩 줄어들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시간에 맞게 강사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확진돼도 수업을 소화하고 있고 그래도 부족하면 보강으로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소재 B초등학교에선 지난 3-4일 양일간 교장·교감이 담임업무와 수업에 투입됐다. 개학을 앞두고 교직원 10여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는데 기간제 교원과 강사라도 공백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초등학교의 교무부장 C씨도 확

진돼 지난달 28일부터 격리 중이지만 집에서 공문 등 업무를 처리했다. 업무를 대신해줄 사람이 없어서다.

C씨는 “수업 말고도 공문처리와 교육청 보고 등 날짜가 정해진 업무는 누군가 해야 하는데 대신 해 줄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확산세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의 경우 등교 이후 교직원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4-25일(0시 기준) 432명이었던 교직원 확진자는 개학 직후인 지난 3-4일 973명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진 현황’을 통해 교원 추가 배치 및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7만5000명 규모의 전국 시·도교육청 인력풀을 마련해 긴급 대체인력 수요를 지원하고, 학생 수가 많은 과밀학교를 중심으로 기간제 교사 89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교사들은 교육부의 대체인력 지원책이 학교 현장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A씨는 “학교 현장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이 없다면 교육청 인력풀 규모는 기계적으로 모집된 숫자일 뿐”이라며 “지금은 교내에서 서로 도와가며 공백을 커버하는 상황인 거지 교육부의 긴급 인력풀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이 인력풀 마련을 넘어 직접적인 인력 제공까지 책



입해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진다는 주장이다.

C씨도 “허황된 정책”이라며 “예고된 공백을 시간을 두고 인력을 구할 수 있지만 확진 상황은 갑자기 생겨 대체인력을 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교사의 휴직이나 수습과 같이 일정 간격을 두고 발생하는 공백은 학교가 미리 대처할 수 있지만, 갑작스럽게 확진 판정을 받는 코로나19의 경우 그럴 수 없다는 의미다.

개학 전후로 교내 대체인력 문제가 심각해지자 교사들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학교가 교육청 인력풀에서 대체교사를 구하는 방식이 아닌 당국이 직접 인력을 제공해주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씨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학교가 인력풀에서 대체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청 단위가 자체 인력풀을 보유해 교사 공백이 생길 시 당국에서 즉시 인력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성경찰, 농공단지 교통안전시설 개선 간담회 개최

보성경찰서는 4일 보성군 조성테크노밸리에서 보성군청·보성농공단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원활한 물류이동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성=김덕순기자



화순소방, 화순군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취임식 및 임명장 수여식

화순소방서(서장 이종희)는 화순군 의용소방대 여성 및 남성 연합회장 취임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2월 28일 가졌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광양소방, 아파트 화재 관계자가 70대 여성 목숨 구해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는 지난 3일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관계자가 70대 여성 목숨을 구했다고 밝혔다. 광양=심종섭기자



광주동부소방, 비화재경보 개선 위한 안전 대책 간담회

광주 동부소방서는 지난달 28일 관내 경보·속보설비 비화재경보 신고 개선 및 화재취약시설 소방안전대책을 위한 관계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월출산국립공원, 제2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 행사 운영

국립공원공단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문광선)는 제2회 국립공원의 날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완도해경, 사랑의 헌혈로 나눔 실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헌혈을 통해 사랑 나눔을 실천중인 우수 직원들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완도=이민혁기자



코로나19로 일부 어린이 감기약 '퐁귀', 정부 제약사와 증산 논의... 코로나19 소아 확진자 급증에 일부 어린이 감기약이 '퐁귀'현상이 빚어짐에 따라 정부가 감기약 생산 제약사와 증산 논의중이다. 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약국에 어린이 해열제가 진열돼 있다.

결혼 직후 떠난 베트남 아내...“혼인무효 안돼” 왜?

갑자기 가출해 혼인무효소

베트남 출신 배우자가 결혼 직후 집을 나가자 우리나라 남편이 혼인무효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게 아닌, 기대했던 한국에서의 결혼생활과 달라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현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국제결혼 주선업체를 통해 베트남 출신인 B씨를 만나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B씨는 우리나라에 입국해 살던 중 한 달 만에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들고 가출했으며 연력이 두절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애초에 B씨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며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씨가 가정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국제결혼을 위한 신상확인서에 직업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에게 처음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게 대법원 관례다. 결혼 이후에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거나 포기하게 된 건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베트남인은 대부분 현지를 떠나 혼인생활을 하게 되는데, 언어장벽이나 문화·관습 차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야 한다는 대법원 관례도 있다.

B씨의 경우에는 결혼 당시 기대했던 우리나라 생활과 현실이 달라 혼인을 포기했을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주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며 약속해 결혼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부모, 형과 함께 살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생활비도 부족해 갈등을 빚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가 진정한 혼인의사를 갖고 결혼해 임국했다더라도 상호애정과 신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어장벽이나 문화적인 부적응, 결혼을 결심할 당시 기대했던 한국 생활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으로 단기간에 관계의 지속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슬비기자

식당서 흡연...제지하는 옆 손님 폭행

징역 1년 실형 선고

인천의 한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한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호승 판사는 상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0시 2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김밥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 B(59)씨의 이미를 머리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담배는 나가서 피워달라”는 B씨의 요구에 화가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정당한 이유없이 위험한 물건을 과도를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5월 17일 출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중 상해는 피고인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이 비춰 죄질이 무겁고, 또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행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특수강제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이 유효를 밝혔다. 최이슬기자